국민 금융생활 안전 교육자료 · EDU-03

가계예산·현금흐름·비상자금

월별 숫자에만 매이지 않고 불규칙 지출과 충격까지 견디는 생활 안전망을 만든다.

교수자용 지도서

본문 10.5pt 이상 · 내용 기준 2026-08-24 · NEXUS FMI 국민 금융생활 안전교육

NEXUS FINANCE & MANAGEMENT INSTITUTE

EDU-03 · 2026년 8월 제1판

교수자 안내

설명보다 학습자의 실제 기록·선택 이유·도움 요청 문장을 확인한다. 피해·채무·질병·가족갈등을 공개하도록 압박하지 않는다.

수업 목표

- 고정·변동·비정기 지출을 구분한다.
- 순현금흐름과 필수생활비를 계산한다.
- 가구 상황에 맞는 비상자금 목표와 적립 순서를 정한다.
- 적자가 생기면 보호할 지출과 줄일 지출을 구분해 대응한다.

교과 해설 · 왜 가르치고 왜 이 순서인가

예산은 절약표가 아니라 생활을 끊기지 않게 하는 시간표입니다

한 달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도 월세·보험료·세금이 한꺼번에 나가면 결제일에 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큰 지출을 빼놓으면 흑자처럼 보이던 가계도 갑자기 흔들립니다.

수입·지출·날짜·필수생활비·비상자금의 관계를 먼저 이해한 뒤에 예산표와 위기대응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 수업이 보호하려는 생활영역

- 주거비
- 식사·의료·교통
- 납부일의 현금
- 소득중단 시 버틸 시간
- 가족의 공동지출 약속

개념의 선후관계

순서	개념	다음 학습으로 이어지는 이유
1	현금흐름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2	지출 분류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3	필수생활비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4	비상자금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5	생활비 바닥선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교수자가 지킬 설명 원칙

- 예산을 절약의 도덕 문제가 아니라 금액과 날짜의 관리 문제로 설명합니다.
- 필수생활비와 선택지출을 구분하되 학습자의 생활방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 비상자금 목표는 획일적 개월 수보다 소득안정성과 필수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 실제 가계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가상 사례로 먼저 계산합니다.

필수개념 지도표

현금흐름

일정 기간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움직임입니다.

- 생활 예: 25일 월급과 20일 월세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 반대 예: 월말 합계만 보고 중간의 부족한 날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 연결: 현금흐름은 금액과 날짜를 함께 보여 줍니다.
- 이해확인: 월말에 돈이 남으면 중간에 부족할 가능성은 없나요?

도달 기준: 있습니다. 지출일이 수입일보다 빠르면 중간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고정·변동·비정기 지출

반복 방식에 따라 지출을 나눈 것입니다.

- 생활 예: 월세는 고정, 식비는 변동, 자동차보험은 비정기 지출로 봅니다.
- 반대 예: 매달 나오지 않는 세금을 뜻밖의 지출로만 보는 것입니다.
- 연결: 지출 성격을 나누면 줄일 수 있는 것과 미리 준비할 것을 찾기 쉽습니다.
- 이해확인: 1년에 한 번 내는 보험료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인가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비정기이지만 예상 가능한 지출입니다.

필수생활비

당장 생활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먼저 지켜야 할 비용입니다.

- 생활 예: 주거·식사·의료·출근 교통비를 우선 남깁니다.
- 반대 예: 모든 고정지출을 무조건 필수라고 보는 것입니다.
- 연결: 필수생활비는 비상 시 무엇을 먼저 보호할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 이해확인: 구독료는 자동이체이므로 항상 필수생활비인가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자동이체 여부와 생활 필수성은 다릅니다.

비상자금

소득중단이나 갑작스러운 필수지출에 쓰는 접근 가능한 돈입니다.

- 생활 예: 실직 기간의 월세와 식비를 위해 별도 계좌에 둡니다.
- 반대 예: 높은 수익을 위해 전부 가격변동 상품에 넣는 것입니다.
- 연결: 비상자금은 수익보다 접근성·원금 변동·사용 시점을 우선합니다.
- 이해확인: 오늘 필요한 비상자금을 팔기 어려운 자산에 두어도 되나요?

도달 기준: 적합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비 바닥선

위기에도 먼저 남겨 둘 최소 생활비 기준입니다.

- 생활 예: 월세·기본 식비·치료비·출근비를 합쳐 보호 금액을 정합니다.
- 반대 예: 평소 카드지출 전부를 바닥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 연결: 바닥선은 대출상환·저축·선택지출 조정 전에 보호할 영역을 정합니다.
- 이해확인: 적자가 나면 모든 지출을 같은 비율로 줄여야 하나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필수생활비를 먼저 보호하고 선택지출부터 조정합니다.

기초개념 설명 수업안

각 단원은 질문으로 시작하고, 원리 설명-판단 순서-생활 사례-오개념 교정-확인문제의 순서로 지도합니다.

1. 잔액과 현금흐름

도입 질문: 돈이 있는데 왜 월말에 부족할까요?

잔액은 한 시점에 남아 있는 돈이고, 현금흐름은 일정 기간 돈이 들어오고 나간 기록입니다. 월초 잔액만으로는 월말 부족을 알 수 없습니다.

수입일과 지출일을 달력에 놓으면 총액이 같아도 특정 날짜에 돈이 모자라는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 판단 순서 1: 정기 수입의 금액과 날짜를 적습니다.
- 판단 순서 2: 필수지출과 자동이체 날짜를 적습니다.
- 판단 순서 3: 날짜별 예상 잔액이 0 아래로 내려가는 구간을 찾습니다.
- 시범 사례: 월급은 25일인데 카드값은 20일에 빠진다면 월 총수입이 충분해도 20일에 결제 실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바로잡을 오해: 한 달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언제나 안전하다는 생각은 틀립니다. 시점과 변동성도 중요합니다.
- 확인 질문: 월 수입 250만원, 지출 230만원이면 예산 점검이 필요 없을까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지출 시점과 비정기 지출 때문에 중간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2. 고정·변동·비정기 지출

도입 질문: 지출을 왜 세 종류로 나눌까요?

고정지출은 매달 비슷하게 반복되고, 변동지출은 사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정기 지출은 매달 나오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수리비처럼 예상 가능한 큰돈입니다.

종류를 나누면 줄일 수 있는 지출과 미리 적립해야 하는 지출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판단 순서 1: 최근 3개월 내역을 모읍니다.
- 판단 순서 2: 각 지출을 고정·변동·비정기로 표시합니다.
- 판단 순서 3: 비정기 지출은 연간 예상액을 월 단위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 시범 사례: 연 60만원 보험료는 결제월에 갑자기 생긴 지출이 아니라 매달 5만원씩 준비할 수 있는 비정기 지출입니다.
- 바로잡을 오해: 고정지출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은 틀립니다. 계약 갱신이나 해지 조건을 확인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질문: 명절비는 매달 없으니 예산에서 빼도 될까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예상 가능한 비정기 지출로 월별 준비액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3. 필수생활비와 선택지출

도입 질문: 무엇부터 지켜야 할까요?

필수생활비는 주거·식사·의료·교통처럼 생활 유지에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선택지출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기 비교적 쉬운 비용입니다.

적자 때 모든 지출을 똑같이 줄이면 건강·주거·근로 유지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 판단 순서 1: 생활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항목을 표시합니다.
- 판단 순서 2: 연체 시 큰 불이익이 있는 지출을 구분합니다.
- 판단 순서 3: 조정 가능한 항목의 금액과 시기를 바꿉니다.
- 시범 사례: 교통비는 단순 소비가 아니라 출근을 유지하는 필수비용일 수 있습니다. 반면 구독서비스는 해지 조건을 확인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바로잡을 오해: 즐거움을 위한 지출은 모두 낭비라는 판단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목적과 한도를 정해 관리합니다.
- 확인 질문: 적자가 나면 월세와 통신 구독을 같은 비율로 줄여야 할까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생활 유지와 불이익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4. 비상자금과 적자 대응

도입 질문: 비상자금은 얼마가 정답일까요?

비상자금에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정답이 없습니다. 필수생활비, 소득의 안정성, 부양가족, 의료·주거 위험에 따라 필요한 규모가 달라집니다.

비상자금은 수익을 높이기보다 필요할 때 바로 꺼낼 수 있고 원금 변동이 작은 곳에 두는 목적이 큽니다.

- 판단 순서 1: 한 달 필수생활비를 계산합니다.
- 판단 순서 2: 소득이 끊길 수 있는 기간과 큰 지출 위험을 추정합니다.
- 판단 순서 3: 목표액·월 적립액·사용 후 보충 규칙을 정합니다.
- 시범 사례: 소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는 정규급여를 받는 사람보다 더 긴 기간의 필수생활비를 준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바로잡을 오해: 비상자금을 투자상품에 넣어 수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생각은 목적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확인 질문: 비상자금 목표가 크면 준비를 포기해야 할까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작은 1차 목표부터 쌓고 상황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립니다.

시범풀이 지도

연간 지출을 빼먹은 예산

매달 10만원이 남는다고 생각했지만 12월에 보험료 72만원을 내야 합니다.

- 결정: 보험료를 월예산에 포함합니다.
- 정보: 연간 72만원을 12개월로 나눕니다.
- 위험: 매달 6만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12월에 부족합니다.
- 행동: 매달 6만원을 별도 항목으로 적립합니다.
- 기록: 납부일과 적립 잔액을 월 1회 확인합니다.

60분 핵심 수업에서도 '왜 배우는가·필수개념·개념 작동 과정·시범풀이'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사례 수를 줄이되 기초학습은 줄이지 않습니다.

보강 주제 지도안

기존 기초개념을 최근 생활 장면에 적용합니다. 적용 조건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출처와 검토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구독·후불결제는 다음 달 현금흐름까지 차지합니다

작은 월 결제도 여러 개가 겹치면 비상자금과 필수생활비를 줄입니다.

하지 않을 것: 이번 달 결제액만 보고 무료체험과 자동갱신을 빼놓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 자동이체·카드 정기결제·후불결제의 다음 청구일과 해지 조건을 한 표에 모읍니다.

지금 할 일: 필수생활비를 먼저 떼고, 사용하지 않는 연결·구독을 해지한 뒤 다음 달 잔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공식 근거: 금융감독원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 검토 2026-08-24
https://fine.fss.or.kr/

60분 핵심 수업안

시간	활동	교수자 확인
0~5분	생활장면·학습 이유	이 학습이 지키는 생활영역 확인
5~15분	용어와 개념카드	뜻·예·반대 예·개념 관계 확인
15~30분	개념 작동 과정	원리·판단 순서·생활 사례·오개념 확인
30~38분	시범풀이	교수자가 판단과정을 소리 내어 보여 줌
38~50분	사례 1개	즉시·나중 결과와 추가정보 비교
50~60분	행동·권리·다음 학습	기초 확인문제와 실행 날짜 확인

90분 수업안

시간	활동	산출물
0~10분	진단·학습계약	개인정보·발언 선택권 확인
10~25분	Part 2·3 구조읽기	용어 8개 생활 예시
25~45분	Part 4 비교도구	비교표 1장
45~70분	사례 5개 모둠실습	선택·근거·추가정보·다음 행동
70~82분	권리·지원 역할연습	도움 요청 문장
82~90분	사후평가·30일 약속	개인 행동계획

다섯 사례 운영 질문

1. 월급은 남는데 통장은 마이너스

연간 지출을 빼고 매달 예산만 맞췄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월예산에 비정기지출 몫을 넣는다.
- 추가정보: 흑자처럼 보인 달도 연간비용을 포함하면 적자일 수 있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비정기지출 연간액을 월 적립액으로 바꾼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카드 한도를 늘린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저축을 모두 해지한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2. 프리랜서의 들쭉날쭉한 수입

좋은 달 수입을 기준으로 고정비를 정했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낮은 달에도 유지되는 구조를 만든다.
- 추가정보: 사업·세금·생활 계정을 나누면 변동을 더 빨리 본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보수적인 기준수입과 생활비 바닥선을 정한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다음 달 수입을 낙관해 결제한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세금 몫까지 생활비로 쓴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3. 갑작스러운 치료비

비상자금이 부족해 고금리 대출을 먼저 찾는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필요액과 이용 가능한 지원을 먼저 확인한다.
- 추가정보: 위기 때는 의료와 주거 같은 필수 영역을 먼저 보호한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치료 일정·보장·공적지원·분할납부를 확인한 뒤 부족액을 계산한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광고 대출을 즉시 받는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진료를 무조건 미룬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4. 명절과 세금

예상 가능한 큰 지출이 같은 달에 몰렸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예상 가능하면 미리 나누어 준비한다.
- 추가정보: 납부기한과 분납 가능 여부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한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연간 달력에 적고 매달 준비액을 따로 둔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그달 카드 할부로 넘긴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자동납부를 모두 끊는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5. 가족 생활비 갈등

누가 무엇을 내는지 말하지 않아 연체가 생겼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돈과 권한을 함께 투명하게 정한다.
- 추가정보: 합의는 금액·날짜·담당·확인방법까지 적는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공동비·개인비·비상연락 규칙을 숫자로 합의한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한 사람이 모든 계정을 통제한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부족할 때마다 서로 빌린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오개념 바로잡기

오개념: 예산은 지출을 줄이는 표다
지도: 예외 없는 문장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계약·조건·공식 확인 위치를 찾게 한다.

오개념: 비상자금은 무조건 몇 개월치가 정답이다
지도: 예외 없는 문장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계약·조건·공식 확인 위치를 찾게 한다.

오개념: 흑자 달이면 재무상태가 안전하다
지도: 예외 없는 문장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계약·조건·공식 확인 위치를 찾게 한다.

평가 해설

1. 가계예산·현금흐름·비상자금에서 가장 먼저 할 일로 알맞은 것은?

정답 A. 지난 3개월 실제 거래를 수입·필수·선택·상환으로 나눈다.

A.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 지난 3개월 실제 거래를 수입·필수·선택·상환으로 나눈다.
B. 이 선택은 '광고의 혜택 문구만 비교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 지난 3개월 실제 거래를 수입·필수·선택·상환으로 나눈다.
C. 이 선택은 '문제가 생긴 뒤에 기록을 만든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 지난 3개월 실제 거래를 수입·필수·선택·상환으로 나눈다.
D. 이 선택은 '주변 사람이 택한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 지난 3개월 실제 거래를 수입·필수·선택·상환으로 나눈다.

2. 비교표에 반드시 함께 넣어야 할 요소는?

정답 B. 비용·위험·기한·보호·증거

A. 이 선택은 '현재 보이는 금액만'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 위험, 기한,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
B.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 위험, 기한,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
C. 이 선택은 '광고 순위와 후기 수'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 위험, 기한,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
D. 이 선택은 '친구가 선택한 상품'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 위험, 기한,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

3. 계약이나 거래 뒤 가장 안전한 기록 방법은?

정답 C. 계약서·설명·거래·접수번호를 원본 형태로 보존한다.

A. 이 선택은 '기억해 둔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상대·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
B. 이 선택은 '상대방이 보관하므로 지운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상대·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
C.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상대·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
D. 이 선택은 'SNS에 개인정보와 함께 올린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상대·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

4. 제도나 숫자가 바뀔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는 방법은?

정답 C. 신청·계약 시점의 공식 기관 안내와 기준일을 확인한다.

A. 이 선택은 '오래된 블로그를 따른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한도·요건·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
B. 이 선택은 '교육자료 숫자를 영구 기준으로 쓴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한도·요건·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
C. 한도·요건·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
D. 이 선택은 '광고 상담원 말만 따른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한도·요건·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

5. 곤란이나 피해 징후가 생겼을 때 알맞은 태도는?

정답 C. 추가 피해를 멈추고 사실·기한·증거를 갖춰 공식 창구에 상담한다.

A. 이 선택은 '추가 차입·송금으로 시간을 번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빠른 차단, 증거 보존,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
B. 이 선택은 '연락과 서류를 피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빠른 차단, 증거 보존,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
C. 빠른 차단, 증거 보존,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
D. 이 선택은 '개인정보를 공개해 도움을 구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빠른 차단, 증거 보존,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

6. 사례 '월급은 남는데 통장은 마이너스'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비정기지출 연간액을 월 적립액으로 바꾼다.

A. 월예산에 비정기지출 몫을 넣는다. 흑자처럼 보인 달도 연간비용을 포함하면 적자일 수 있다.
B. 이 선택은 '카드 한도를 늘린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월예산에 비정기지출 몫을 넣는다. 흑자처럼 보인 달도 연간비용을 포함하면 적자일 수 있다.
C. 이 선택은 '저축을 모두 해지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월예산에 비정기지출 몫을 넣는다. 흑자처럼 보인 달도 연간비용을 포함하면 적자일 수 있다.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월예산에 비정기지출 몫을 넣는다. 흑자처럼 보인 달도 연간비용을 포함하면 적자일 수 있다.

7. 사례 '프리랜서의 들쭉날쭉한 수입'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보수적인 기준수입과 생활비 바닥선을 정한다.

A. 낮은 달에도 유지되는 구조를 만든다. 사업·세금·생활 계정을 나누면 변동을 더 빨리 본다.

B. 이 선택은 '다음 달 수입을 낙관해 결제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낮은 달에도 유지되는 구조를 만든다. 사업·세금·생활 계정을 나누면 변동을 더 빨리 본다.
C. 이 선택은 '세금 몫까지 생활비로 쓴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낮은 달에도 유지되는 구조를 만든다. 사업·세금·생활 계정을 나누면 변동을 더 빨리 본다.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낮은 달에도 유지되는 구조를 만든다. 사업·세금·생활 계정을 나누면 변동을 더 빨리 본다.

8. 사례 '갑작스러운 치료비'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치료 일정·보장·공적지원·분할납부를 확인한 뒤 부족액을 계산한다.

A. 필요액과 이용 가능한 지원을 먼저 확인한다. 위기 때는 의료와 주거 같은 필수 영역을 먼저 보호한다.
B. 이 선택은 '광고 대출을 즉시 받는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필요액과 이용 가능한 지원을 먼저 확인한다. 위기 때는 의료와 주거 같은 필수 영역을 먼저 보호한다.
C. 이 선택은 '진료를 무조건 미룬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필요액과 이용 가능한 지원을 먼저 확인한다. 위기 때는 의료와 주거 같은 필수 영역을 먼저 보호한다.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필요액과 이용 가능한 지원을 먼저 확인한다. 위기 때는 의료와 주거 같은 필수 영역을 먼저 보호한다.

9. 사례 '명절과 세금'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연간 달력에 적고 매달 준비액을 따로 둔다.

A. 예상 가능하면 미리 나누어 준비한다. 납부기한과 분납 가능 여부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한다.
B. 이 선택은 '그달 카드 할부로 넘긴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예상 가능하면 미리 나누어 준비한다. 납부기한과 분납 가능 여부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한다.
C. 이 선택은 '자동납부를 모두 끊는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예상 가능하면 미리 나누어 준비한다. 납부기한과 분납 가능 여부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한다.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예상 가능하면 미리 나누어 준비한다. 납부기한과 분납 가능 여부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한다.

10. 사례 '가족 생활비 갈등'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공동비·개인비·비상연락 규칙을 숫자로 합의한다.

A. 돈과 권한을 함께 투명하게 정한다. 합의는 금액·날짜·담당·확인방법까지 적는다.
B. 이 선택은 '한 사람이 모든 계정을 통제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돈과 권한을 함께 투명하게 정한다. 합의는 금액·날짜·담당·확인방법까지 적는다.
C. 이 선택은 '부족할 때마다 서로 빌린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돈과 권한을 함께 투명하게 정한다. 합의는 금액·날짜·담당·확인방법까지 적는다.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돈과 권한을 함께 투명하게 정한다. 합의는 금액·날짜·담당·확인방법까지 적는다.

민감한 상황 대응

- 피해·연체·가족갈등 경험을 전체 앞에서 말하게 하지 않는다.

- 즉시 위험·범죄·자해 위험이 있으면 교육보다 안전과 기관 연계를 우선한다.
- 교수자가 법률·세금·투자 결과를 단정하지 않고 적용 시점의 공식 상담을 연결한다.
- 개인 활동지는 수거를 최소화하고 보관·폐기 기준을 사전에 알린다.

수준별·상황별 조정

학습 상황	조정 방법	지켜야 할 기준
청소년·초보	용어를 생활 장면과 그림으로 먼저 설명	계약 책임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지 않음
저문해·이주민	한 문장 한 정보, 숫자·날짜를 크게 표시	통역·쉬운 자료 제공 여부 확인
고령·시각 불편	큰 글씨와 소리 내어 읽기, 충분한 응답시간	대신 결정하지 않고 본인 의사 확인
피해 경험자	가상사례와 비공개 선택지 사용	경험 공개·책임 추궁 금지

수행평가 루브릭

기준	기초	도달	확장
구조 이해	용어를 찾는다	돈·책임·기한을 설명한다	예외와 변동 가능성을 말한다
비교 판단	한 요소를 본다	총비용·위험·권리를 비교한다	최악 시나리오와 중단 기준을 정한다
행동·기록	행동을 고른다	날짜·근거·증거를 적는다	공식 기관에 묻는 문장을 작성한다
권리·지원	기관을 안다	알맞은 기관을 고른다	다음 절차와 기한을 확인한다

자료 업데이트 점검

내용 기준일 2026-08-24, 다음 정기점검 2026-11-20. 숫자·기한·기관명·URL·법령 개정 여부를 수업 전에 다시 확인한다.

점검 대상	질문	기록
법·제도	시행일·대상·예외가 바뀌었는가	확인 URL·날짜
숫자·기한	한도·세율·신청기한이 유효한가	공식 문서 제목
기관·서비스	명칭·전화·주소·절차가 유효한가	접속·전화 결과

점검 대상	질문	기록
사례	과장·낙인·단정이 없는가	수정 사유

교수자료 A · 개념·경계 지도

이 모듈이 담당하는 역량과 다른 모듈로 넘겨야 할 내용을 구분한다.

영역	이 모듈에서 다룰 것	수업에서 단정하지 않을 것
이해	고정·변동·비정기 지출을 구분한다.	개별 계약의 최종 법률효과
비교	순현금흐름과 필수생활비를 계산한다.	미래 가격·금리·수익의 예측
행동	가구 상황에 맞는 비상자금 목표와 적립 순서를 정한다.	모든 학습자에게 같은 정답 강요
권리	적자가 생기면 보호할 지출과 줄일 지출을 구분해 대응한다.	기관의 최종 결정·판결 결과

교차 모듈

- EDU-07 직장·자영업 금융

교수자료 B · 수업 전 최종 검증표

수업 당일에도 공식 근거와 접근성을 다시 확인한다.

검증 항목	완료	메모
공식 URL 접속과 적용 기준일	☐	
한도·기한·기관명 최신성	☐	
본문·화면 글자 크기와 대비	☐	
활동지 개인정보 최소화	☐	
민감 경험 비공개 선택권	☐	
상담·신고 연결 방법	☐	
60분·90분 시간 배분	☐	
사전·사후평가 동일 역량	☐	

공식 확인처

- 통계청 · 가계동향조사 · https://kostat.go.kr/
- 복지로 · 복지서비스 찾기 · https://www.bokjiro.go.kr/
-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재무상담 · https://www.kinfa.or.kr/
- 금융감독원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 https://fine.fss.or.kr/